

보잉, JSF 무게 감소에 총력을 기울여

보잉사는 JSF 다목적 전투기 STOVL형 설계의 성능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잉사는 최근 기존의 델타 날개의 설계안을 후퇴날개와 수평 꼬리날개가 결합된 373형이라고 불리는 설계안으로 대체하였다. 보잉의 JSF담당 부사장인 프랭크 스타커스는 373형 설계안이 거의 확정된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비록 보잉사가 2000년에 있을 최종 입찰까지 계속 설계를 진행할 것이지만 더 이상 외형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지난 달에 있었던 설계안 검토에서 보잉사는 자사의 기존 설계안이 정부 성능요구치의 95%의 성능을 가진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STOVL형의 경우는 최대착함 능력이 해병대의 요구에 미달되어

무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귀환하기 위해서 무장을 버려야만 하기 때문에 최대착함중량의 증대를 위해서 373형 설계안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보잉사는 나머지 중량 초과분을 없애기 위해 항공기 내부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다.

CASA, 에어버스 군용수송기 최종조립업체로 선정 전망

에어버스사의 군용기 부문이 유럽 국가들로부터 A-400M 군용수송기의 개발 및 생산 주문을 받아낸다면 스페인의 CASA사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전에 FLA(Future Large Aircraft)라고 불리던 A-400M의 생산은 유럽 7개국이 공동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최종조립지의 선정은 일련의 작업량 분담과 정 협상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A-400M의 개발사업은 엔진 선정을 제외한 모든 골격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다. A-400M의 공동생산에 참여하려고 하는 나라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이지만 이 중에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네 나라는 록히드 마틴의 C-130J와 보잉의 C-17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유럽 국가들을 목표로 러시아 An-70 수송기를 서유럽의 입맛에 맞게 개량한 An-7X도 유럽 수송기 시장에 뛰어 들 전망이어서 상당한 혼전이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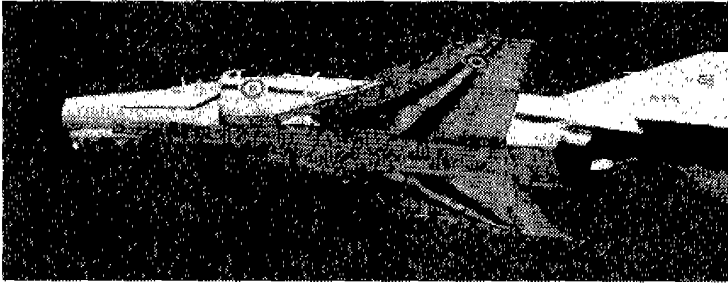
터키공군, 업그레이드 팬텀 인수

이스라엘항공산업(IAI)은 지난 3월 1일 터키 공군에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F-4팬텀의 1번기를 인도했다. 터키 공군의 팬텀 업그레이드 사업은 IAI에서 총 52대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인도된 1번기는 신형전자장비를 장착한 2대의 시제기 중 한 대로서 나머지 한 대도 곧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터키 공군에 인도되는 업그레이드 팬텀은 알타 레이더와 능동 전자전 시스템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각종 전자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이 업그레이드 계획은 2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1차는 IAI에서 26대의 터키 팬텀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인도하고 2차로 나머지 26대를 이스라엘의 감독 하에 터



보잉사는 자사의 JSF 설계안의 무게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터키공군에 인도된 업그레이드 팬텀

키에서 직접 개조하게 된다.

이번에 인도된 F-4이외에도 이스라엘의 IAI와 엘빗사는 지난 9월에 이미 터키 공군의 F-5 전투기의 전자장비 개량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IAI는 이스라엘의 팬텀기에 대해서도 팬텀 2000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노드롭 그루만, 미공군 T-38 훈련기 날개 개조사업 수주

미공군의 T-38 훈련기의 날개 손상보수 및 재설계 사업이 노드롭 그루만에게 돌아갔다. 이번에 노드롭 그루만이 따낸 계약은 T-38의 신형 Dash-33 표준형 날개를 개발하는 총 7단계 사업 중의 3번째 단계로서 타당성 조사 등의 1,2번째 단계 역시 노드롭 그루만에서 수행한 바 있다.

뒤에 이어질 제 4단계는 날개 시제품의 제작으로서 사업예산 적용에 따라 올해 말경에 노드롭 그루만에게 발주될 전망이다. 미 공군에서는 시제품 개발 이후의 T-

38의 개량형 날개의 제작 사업에는 경쟁입찰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F-15I 실전배치

이스라엘군의 F-15I로 구성된 첫 번째 비행대대가 지난 1월부터 실전배치 되었다. 이 비행대의 임무는 정밀 유도무기를 이용해서 레바논 지역을 공격하는 것으로 첫 번째 실전 임무는 지난 1월 11일 남부 레바논의 수주드 지역의 헤즈볼라 반군거점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 임무에서 F-15I 전투기는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조종사들의 보고로는 매우 높은 명중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팬텀 2000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을 F-4의 퇴역에 의한 공백을 막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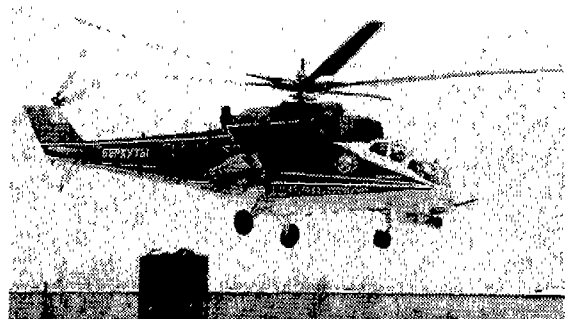
25대의 F-15I를 도입했다.

밀(MIL)설계국 Mi-24M 비행시험 개시

밀 설계국은 현대화작업을 마친 Mi-24M 하인드의 시험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3월 4일의 첫 시험비행은 밀 설계국내의 비행장에서 이뤄졌으며 25분간 행해졌다. 이 비행은 지난 2월 있었던 2회의 짧은 하버링에 이은 본격적인 시험비행의 시작이었다.

Mi-24M의 주목할 만한 외형변화는 주로터와 꼬리로터의 변화, 보다 경량화되고 고정식으로 바뀐 착륙장치, 스펠이 짧아진 스텝윙, 기존 Mi-24D의 12.7mm 기관총을 대체한 NPPU-24 23mm 2열 기관포의 회전식 포탑 등이다.

내부장비의 개량으로는 BVK-24 컴퓨터 시스템, 대형화된 거리 측정기, 신형 미사일을 위한 사격 통제시스템, 신형 무선장비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3월 4일 25분간의 첫 비행을 실시한 신형 Mi-24M